전남 지난해 논 타작물 재배…쌀 4만t 감축

전국면적 29%, 달성률 전국 1위…조사료 전환이 절반 이상

올 목표 대폭 확대…22개 시·군서 4728ha 전환재배 신청

지난해 전남지역이 가장 높은 논 타작물 재배실적을 거둬 약 4만t의 쌀 생산량을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목표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린 101.4%로 잡았다.

5일 농협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남지역 논 타작물재배 실적은 목표면적 1만1661ha의 82.1%에 달하는 9576ha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전환면적 3만3235ha의 3분의 1(28.8%)에 달하는 면적으로, 전남본부는 전국 달성률 1위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전국에서는 목표 면적 5만5000ha의 60.5%에 해당하는 3만3285ha가 쌀 대신 재배됐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량을 조절해 쌀값을 안정시키고 재고비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운영돼왔다. 올해 전국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385만7000t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전국 타작물재배 목표를 지난해 5만5000ha의 36% 수준인 2만ha로 정했다. 조곡 가격이 상승세를 이루면서 타작물재배 면적 감소 폭은 다소 둔화됐다.

지난해 논 타작물재배를 통해 전남지역에서 감축된 쌀 생산량은 약 4만t으로 조사됐다.

농협 측은 쌀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3192억원 상당 전남 농가소득에 기여했다고 내다봤다. 2019년산 수확기 조곡(40kg) 가격은 6만2000원 선에 형성됐다. 올해 목표 달성률은 지난해 실적(82.1%)보다 대폭 확대한 101.4%로 조사됐다.

지난 4월 말 기준 22개 시·군은 목표로 잡은 전환면적 4662ha 보다 66ha(1.4%) 더 많은 4728ha를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신청했다.

신청 작물별로 보면 조사료가 2625ha로 전체의 56%를 차지했고, 일반작물 1054ha(22%)와 두류 920ha(19%)가 뒤를 이었다.

■전남 논 타작물재배 실적

2019년		2020년(4월 말 기준)	
목표	실적	목표	실적
1만 1661ha	9576ha (82.1%)	4662ha	4728ha (101.4%)

〈자료:농협 전남본부〉

목표 대비 신청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계획면적 250ha의 113.9%(285ha)를 신청한 영암군으로 나타났다.

이어 해남군이 784ha(103.8%)를 신청하며 뒤를 따랐고, 구례(103.1%·82ha), 화순(101.9%·143ha), 나주(101.6%·203ha), 신안(101.5%·244ha), 완도(101.3%·81ha), 함평(101.2%·213ha), 담양(100.4%·181ha), 진도(100.4%·150ha), 여수(100.2%·60ha), 무안(100.1%·260ha), 장성(100.1%·80ha), 장흥(100.1%·260ha), 고흥(100%·676ha), 보성(100%·200ha), 곡성(100%·140ha), 강진(100%·270ha), 순천(100%·140ha), 영광(96.3%·241ha), 광양(85.3%·34ha)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완도군인 계획면적 167ha 대비 117.5%인 193ha를 재배전환하며 실적 1위를 차지했다.

고흥(112.2%), 구례(107.9%), 해남(97%), 곡성(95.7%), 무안(93.9%), 장흥(93.7%), 광양(90.7%) 등이 높은 전환율을 보였고, 목포(37.5%), 나주(50.5%), 영광(60.7%), 진도(70%) 등은 비교적 낮았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액은 조사료(ha당 430만원), 일반작물(〃270만원), 두류(〃255만원), 휴경(〃210만원) 등에 따라 다르다.

농식품부는 타작물재배로 생산된 농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지역별 참여실적과 연계한 공공비축미 배정 등 조치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논 타작물사업을 통해 생산된 콩은 전량 정부 수매되며, 조사료의 경우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체결 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비축미 물량배정 때 참여실적의 50%가 반영되며, 해당 시군 참여실적에 따라 미곡종합처리장(RPC)의 벼 매입자금 4000억원, 농협 무이자자금 2000억원 이상 등 지원된다. /백희준 기자 bhj@

강형구(맨 오른쪽) 농협 광주본부장이 다문화가정에 출산육아용품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광주본부 다문화가정 출산육아용품 지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올해 광주지역 다문화가정 17가구에 출산육아용품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지난 1일 남구 대촌농협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자녀를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지역 농업인 다문화가정에 출산육아용품을 전달했다.

농촌 다문화가정 2세 보육비 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지역사회 정착유도 및 농업·농촌을 이끌어 갈 후계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된 용품은 턱받이, 전동 손톱깍기, 힙시트, 이유식 식기세트, 방수요, 마스크 살균 소독기 등으로 구성됐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이번 출산육아용품 지원이 다문화가정의 육아부담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저출산과 고령화, 농촌의 인구유출에 따른 관내 인구감소 문제에 함께 고민하고 대처하는 농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하나로마트 등 식품안전 점검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달 말까지 보름 동안 지역 하나로마트 등 농산물 유통사업장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광주본부는 하절기를 맞아 이 기간 동안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운영했다.

특별점검 대상은 곡류·두류 가공공장, 미곡종합처리장(RPC), 잡곡소포장센터, 직거래장터, 로컬푸드직매장, 하나로마트 등 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장이었다.

광주본부는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원부재료 및 판매제품 보관온도 관리상태 ▲작업장 및 작업자 위생상태 ▲여름철 고위험군 식품관리 상태 ▲원산지 표시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보존 및 보관방법▲위생관리기준 준수여부 등을 중점 점검·지도했다.

강형구 본부장은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을 포함한 모든 판매장에 대해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하절기에도 식품안전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T, 식품기업·수출농가 해외시장 맞춤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소 식품기업과 수출농가를 대상으로 무료로 해외시장 맞춤조사를 해준다.

aT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2020 해외시장 맞춤조사' 서비스를 연중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해외시장 맞춤조사는 수출 희망국가 및 품목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신청하면 구체적인 시장정보를 일정기간 내에 무료로 제공하는 일대 일 맞춤형 서비스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수출 활동이 제한된 농가를 돕기 위해 지원 서비스 횟수를 최대 5회까지 늘렸다. 한 달 동안 최대 2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해외시장 정보는 시장분석과 경쟁력분석, 소비자분석 등이 있다.

aT 측은 해외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해외 구매 담당자(바이어)와 소비자의 생생한 피드백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조건 등 자세한 정보는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게시된 사업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올 마늘 생산량 35만t

지난해보다 9.6% 감소

가격 다소 오를 듯

올해 마늘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감소하면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라고 농업 당국이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올해 마늘 생산량이 35만t으로 평년보다 15.0% 많지만 지난해보다는 9.6% 감소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관측본부는 841개 표본 필지를 대상으로 실측한 결과 마늘 생육기 후반 기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생산 단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차례 마늘 수급안정 대책으로 평년 대비 과잉물량 4만5000t보다 많은 5만7000t을 시장격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기준 정부 수급대책으로 3만t이 시장격리됐으며, 정부·농협 수매, 수출 등 지속 추진으로 과잉물량 해소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 남도종 마늘의 농협 수매 단가는 지난해 1kg당 1800원에서 2300원으로 올랐고, 민간 거래 단가도 2400원까지 상승했다.

경남 남해군 남도종 마늘의 농협 수매 단가는 지난해 1kg당 2500원보다 500원 더 비싼 3000원으로 결정됐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지역 '청년농부 사관학교' 졸업생 30명은 최근 무안군 삼향읍 농협 전남지역본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농촌 정착 경험담을 나눴다. 〈농협 전남본부 제공〉

전남지역 청년농부 사관학교 졸업생 30명 농촌 정착 간담회

3기 172명 졸업생 배출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전남지역 '청년농부 사관학교' 졸업생 30명을 대상으로 농촌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고 5일 밝혔다.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농협 청년농부 사관학교는 6개월 과정 청년농업인 육성과정이다. 농업용 드론, 굴삭기, 지게차 등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을 돕고 영농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론·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지난 2018년 첫발을 내디딘 청년농부사관학교는 1기 22명, 2기 68명, 3기 82명 등 17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첫 수료자가 나온 2018년, 졸업생들의 영농정착률은 63.6%(22명 중 14명)으로 나타났다. 1~3기 평균 영농정착률은 33.1%(172명 중 57명)로 집계됐다.

농협은 오는 2021년까지 경기도 안성시에 연면적 1만7154㎡(5189평) 규모 청년농부사관학교 전용 건물을 짓고 오는 2022년부터 연 교육생 규모를 500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석기 전남본부장은 "농협은 농업이 대우받고, 농촌이 희망이 되며, 농업인이 존경받는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자는 취지로 '농토피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미래 농촌의 일꾼인 청년들과 농토피아를 만들고 청년 농업인 정착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펼쳐 농촌의 안정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